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공동선언문 (안)

“평화로운 한반도, 조화로운 세계”를 향한 한중일 3국 불자들의 공동선언

한·중·일 3국의 불교대표들은 불기2558(2014)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류의 공존과 행복을 위한 불법홍포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불교사상에서 평화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국제학술강연회는 각국의 역사 속에서 불교와 불교도의 평화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개최한 휴전선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참혹했던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불자들이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고, 부처님 전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발원하였습니다.

65년 전 겪었던 한국전쟁은 고귀한 450만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한반도 전체를 황폐한 공간으로 뒤바꾼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상과 서로에 대한 증오는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대립과 분열, 비방과 증오만 넘쳐나던 이곳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를 만든 곳이 휴전선이기도 합니다. 전쟁, 죽음과 폐허의 상징이 화해와 협력, 상생, 번영의 상징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 둘 만들어 간다면, 마침내 이곳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중·일 3국의 불자들은 분단지역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엄숙히 봉행하며, 전쟁은 쉼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언합니다.

첫째, 한중일 3국의 불교도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분쟁에도 적극 반대합니다.

냉전시기의 피해 지역이자, 많은 인명의 살상과 민족간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아픔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어 갑시다.

둘째, 한중일 3국의 불교도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나아가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이제 오랜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역의 평화공원 개발 등 평화를 위한 사업실천으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의 불교도는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살생도 깊은 죄업임을 알고, 성찰하며 수행할 것 입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의를 증진하여,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연대 동참할 것입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중국불교협회 수석부회장 쉼 칭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카쿠쵸